

일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학의 필요성 및 교육방안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I』을 중심으로—

윤혜영*

(e-mail : yun1971@cn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문학을 활용한 문화칼럼 |
| 2. 고등학교 『일본어 I』 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 4.1. 기존 문화내용에 접목시켜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방법 |
| 3. 문학의 가치와 문학교육의 필요성 | 4.2. 독자적으로 문학을 소개하는 방법 |
| | 5. 나가기 |

キーワード：2015改定(2015 revision), 日本語教育(Japanese education), 日本語 I (Japanese I), 文化(culture), 文学(literature)

1. 들어가기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이 개정되면서 제2외국어 교과서에 ‘문화’항목이 추가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15년 개정에 따른 일본어교육의 목표를 보면 “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나. 일본 문화의 이해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른다. 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 교류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¹⁾고 기술되어 있다.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시각의 세계관을 수용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력과 인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²⁾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충남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교육부(201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6])』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p.294.

일본어교육의 내용체계 또한 발음, 문자, 어휘, 문법 등 의사소통 표현의 근간이 되는 언어적 내용과 함께 문화가 편성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로 인해 일본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화교육에 초점을 둔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즉, 문화를 배우는 것”³⁾, “일본어 습득의 최고 정점에 일본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⁴⁾ 등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나 생활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안하는 문헌들도 많은데,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본문화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문학에 주목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교육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의 한 영역이며 언어를 통해 사회와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이라는 문화적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어교육과 문학을 접목시킨 기존 연구의 경우,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언어의 4가지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⁵⁾ 그리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사용되는 교과서에 주목한 연구를 보면 교육과정 검토나 언어교육 쪽에 치중되어 있고⁶⁾ 문화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중 2015년 개정 『일본어 I』 8종에 있는 문화내용을 소개하고 “언어의 4기능을 향상시키는 코너에도 문화적 내용을 포함”시킬 것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나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⁷⁾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I』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화내용의 특징 및

2) 전개서, 교육부(2015) p.293.

3) 호소카와 히데오(2012) 「언어와 문화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언어와 문화를 잇는 일본어교육』 시사일본어사, p.3.

4) 천호재(2014) 『일본문화의 이해와 일본어교육』 역락, p.5.

5) 김다경(2016)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일본어교육 에쿠니 가오리의 『호텔선인장』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17,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이경옥(2004)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학수업 방법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봇짱(坊っちゃん)」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47,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등

6) 이소라·오현정(2020)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본어 교과서 쓰기활동 분석」 『日本語學研究』 64, 한국일본어학회, 김은정(2019) 「2015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I』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 고찰 -정확성과 유창성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85, 한국일본어문학회, 김은정(2018)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과정 고찰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日本文化論叢』 18, 대한일본문화학회, 윤장구(2016) 「2015개정교육과정(일본어 I)의 검토와 개선 방안」 『日語日文學』 72, 대한일어일문학회 등

7) 이경수(2019) 「日本語教科書の意思疎通機能と日本文化に関する研究」 『日本語文學』 82, 한국일본어문학회, p.160.

문학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문학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고등학교 『일본어 I』 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총 8종의 교과서 중 채택률이 높은 미래엔, 천재교과서(이하 ‘천재’), 다락원, 능률교육(이하 ‘능률’)⁸⁾에서 발행된 『일본어 I』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관련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미래엔은 ‘문화 체험하기’, 천재는 ‘일본 이야기’, 다락원은 ‘문화 알아볼까요’, 능률은 ‘ようこそ日本!’이라는 제목 하에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⁹⁾에 맞추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교과서 4종에 실린 문화내용

구분	내용	미래엔	천재	다락원	능률
일본의 간략한 개관	행정구역, 지리, 인구, 기후, 관광명소 등	○	○	○	○
언어문화	의뢰 방법, 승낙·거절 방법, 경어법, 호칭 방법, 표현적 특징 등	문화소개에서는 보이지 않고 언어학습 쪽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비언어문화	손짓, 몸짓 등	방문예절을 설명하는 곳에서 부분적으로 보임			
일상생활 문화	가정생활				
	학교생활	○	○	○	○
	사회생활				
	교통 및 통신	○	○	○	○
	의·식·주	○	○	○	○
	스포츠	○			○
	여행	○	○		○

8) 오현정 외 5명(2018) 『일본어1』 미래엔, 배홍철 외 5명(2018) 『일본어1』 천재교과서, 윤강구 외 3명(2018) 『일본어1』 다락원, 박행자 외 7명(2018) 『일본어1』 능률교육

9) 전계서, 교육부(2015) p.305.

	환경				
	위기관리				○
	연중행사	○	○	○	○
	마쓰리	○	○	○	○
	통과의례				
대중문화	노래				○
	만화		○		○
	애니메이션	○	○		○
	드라마				
	영화				○

위의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4권의 교과서 모두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학습 및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먹밥(おにぎり), 고이노보리(鯉のぼり) 과자 보관함, 유카타(浴衣) 인형, 다코야키(たこ焼き), 오마모리(お守り), 주요 연중행사 책자 등을 만들어보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문화를 알 수 있는 컬러풀한 이미지들은 언어학습 부분에도 효과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문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문화와 일본문화를 비교하는 부분 또한 많이 할애되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먼저 문화의 범주가 매우 방대하여 모두 다루기 힘든 상황에서 ‘언어문화’라는 항목을 지침에 삽입시킨 부분이다.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내용을 보면 ‘언어문화’를 ‘의뢰 방법, 승낙·거절 방법, 경어법, 호칭 방법, 표현적 특징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언어문화에 대해 “일상의 언어생활, 언론, 문학, 출판 등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¹⁰⁾이라는 정의를 참고로 한다면 문학을 포함한 더 넓은 범주의 문화를 지칭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문화소개 부분에서는 지침에 의거한 ‘언어문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고 ‘비언어문화’ 또한 방문예절을 설명하는 곳에서 확인되는 정도였다.

10) 다음 국어사전(<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76425&supid=kku000221525>. 검색일: 2020.09.07.)

그리고 각 단원의 첫 부분에 일본문화관련 사진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고 간혹 주요학습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등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다채롭게 보일 수는 있지만 각 단원의 핵심내용을 분산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환경, 통과예, 드라마 등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는 보이지 않고 위기관리는 능률에서만 설명하고 있다. 다도, 꽃꽂이, 가부키(歌舞伎) 등의 전통문화는 일본어2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즉 일본의 지리와 도시, 의식주, 연중행사, 고등학교의 연간 일정표 등 대부분 다루고 있는 문화내용은 비슷하다. 다다미라는 표기의 오류도 보인다.

일본어 외의 제2외국어로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가 있다. 이 중에서 일본어 I 과 독일어 I 을 제외하고는 문화적 내용 속에 문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I, 중국어 I, 베트남어 I 에는 예술문화에 문학을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어 I 의 경우 “예술문화 : 음악, 미술, 문학 등”이라고 명시한 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 “프랑스어권 각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제도, 사회적 관례, 문학, 음악, 미술, 그 외 특징적인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¹¹⁾라고 기술되어 있다. 더욱 자세하게 문학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어 I 과 아랍어 I 이다. 러시아어 I 에는 “러시아 작가(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의 대표 작품을 검색하고, 그 내용과 당시의 시대 상황 등을 조사한 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아랍어 I 에는 “아랍 작가(지브란 칼릴 지브란, 나집 마흐푸즈 등)의 대표 작품을 검색하고, 그 내용과 당시의 시대 상황 등을 조사한 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¹²⁾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작가의 이름과 지도내용까지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에서 주목하는 문학에 대한 설명은 4권 모두 보이지 않는데, 다락원에서 발간한 교과서의 ‘읽고 표현해볼까요’ 부분에 ‘모모타로(桃太郎)’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모모타로’ 이야기의 앞부분이 이미지와 함께 읽기연습용으로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한국어로 줄거리가 적혀 있다. “일본의 옛날이야기 < 모모타로 >”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삽화가 삽입되어 있는 대중소설격인 근세문학 구사조시(草双紙)로서 소개되어도 좋을 듯하다.

11) 전개서, 교육부(2015) p.167.

12) 전개서, 교육부(2015) 러시아어 I pp.353-354, 아랍어 I pp.396-397.

3. 문학의 가치와 문학교육의 필요성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제대로 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어 I』 교과서에 실린 문화내용은 주로 물질문화에 편중되어 있다. 학생들을 일본지역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사회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과적인 재료로서 문학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언어를 핵심적인 매체로 사용하고 있는 문학은 어쩔 수 없이 삶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¹³⁾는 말처럼 문학은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삶이나 생각 등을 그려내고, 그 속에 무한한 상상력과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한 나라의 특징이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최적화된 소재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매우 다양한데, “문학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진다. 문학 작품은 작품이 창작된 시대 현실과 문화를 반영하여 창작되며 시대·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소통되기 때문”¹⁴⁾이라는 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재해와 재난이 끊이지 않고 문화콘텐츠산업이 미래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문학을 도입한 문화교육은 꼭 필요하다. 먼저 버블 붕괴 이후 불안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¹⁵⁾이 증가하였고,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및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살아가는 힘을 상실한 사람들이 급증하였는데, “훌륭한 문학작품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날카롭게 조명해내고, 사회 속에서 인간이 고뇌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힘을 그리고 있”¹⁶⁾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례로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이하 ‘하루키’라고 칭함)는 『색채가

13) 김옥동(1996)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p.40.

14) 6. 가치 있는 문학의 세계(<https://yensong.tistory.com/104>. 검색일: 2020.8.20.)

15) 이 시기 ‘폐색감(閉塞感)’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운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며 “불투명한 사회나 미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閉塞感’을 느끼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 桐ヶ谷(2011.5.26.) 優息の詰まる職場・職場の閉塞感はどこからやって来るのか? (第1回) 社会や企業を取り巻く“閉塞感”(https://toyokeizai.net/articles/-/7066 검색일: 2020.09.18.)

16)鈴木斌(2005) 『生きる力を与える文学 -深い感動・思索の中心を読む-』 冬至書房、p.11.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色彩を持たない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2013 文藝春秋)라는 작품에 기존과는 다른 주인공을 조형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자살만을 생각하던 주인공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같은 해 발표된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1941~)의 <바람이 분다(風立ちぬ)>와 다카하타 이사오(高畑勲 1935-2018)의 <가구야공주 이야기(かぐや姫の物語)>가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자에는 힘든 세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조형되어 있고, 후자에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의 소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 다큐프로그램에서는 1896년에 발간된 문학잡지가 100년 동안 발행되고 노벨문학수상자를 두 명이나 배출한 것을 들며 “문학의 힘이 오늘날 일본문화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¹⁷⁾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신초샤(新潮社)의 편집장이었던 히로카즈 미에(博一三重)도 “문학 자체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화, 애니메이션, TV드라마, 영화 등 여러 콘텐츠의 뿌리이니깐요. 그 근저에 있는 것이 역시 문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일본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TV 외에 여러 가지 강한 문화산업이 있는데 그 근저에 있는 것이 역시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¹⁸⁾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문화콘텐츠 속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일본문학에 대한 이해는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¹⁹⁾는 고등학교 교육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을 통해 일본사회와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일본사회의 문제 및 방향성,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에 충분하다. 물론 문학을 비교과나 교과과정 중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화요소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상대국가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²⁰⁾는 지적도 있듯이, 교과서의 문화내용에 문학을 도입할 필요성은 매우

17) EBS 다큐프라임 국가경쟁력 리포트 <제3부 문화강국이 되는 길> 방송일: 2010.09.29.

18) 위의 자료 <제3부 문화강국이 되는 길>

19) 교육부(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Ⅰ)(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4])』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p.6.

20) 오세원(2005) 「한국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반영된 일본 문화 요소의 현황 -제7차

크다고 할 수 있다.

4. 문학을 활용한 문화칼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I』 교과서의 문화내용에 접목시켜 일본문학을 소개하고 일본문화콘텐츠와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문학을 문화칼럼의 한 영역 속에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4.1. 기존 문화내용에 접목시켜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방법

먼저 기존 교과서의 문화내용에 문학을 접목시켜 문화콘텐츠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래엔, 다락원, 능률에서 발간한 교과서를 보면 일본화폐를 소개하고 있다. 능률의 경우 1과 도입 전에 일본화폐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화폐 단위는 엔(円/¥)이다. 화폐의 종류는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의 동전과 1,000엔, 2,000엔, 5,000엔, 10,000엔의 지폐가 있다”²¹⁾고 기술되어 있고, 5과의 숫자 읽기 연습에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폐의 이미지에 있는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1872-1896)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대한 설명을 삽입할 수 있다. 지폐의 인물이나 이미지가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히구치 이치요의 경우 최초의 여성직업작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아 현재 5천 엔(円) 권의 지폐모델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小泉) 내각 메일매거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21세기의 일본사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성의 활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남녀공동참여사회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5천 엔 권에는 전후(戰後) 처음으로 여성의 초상으로서 히구치 이치요를 채택했습니다. 히구치 이치요는 여자 혼자의 힘으로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난했지만 가족의 화목을 이루면서 메이지(明治)를 대표하는 여성문인으

교육과정에 따른 12종 [일본어 I] 교과서 중심으로-』 『日本文学』 24, 한국일본어문화회, pp.112-113.

21) 박행자 외 7명(2018) 『일본어1』 능률교육, p.8.

로서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절하였지만 짧지만 빛나는 일생을 보낸 히구치 이치요는 여성 사회진출의 선구자로서 21세기의 일본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²²⁾

또한 2천 엔 권의 뒷면은 일본고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겐지모노가타리』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현재 일본지폐를 설명하는 문화내용과 결부시킬 수도 있고 문화콘텐츠 및 도시재생사업의 아이디어로서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겐지모노가타리』²³⁾



2000년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제26회 주요선진국정상회담과 밀레니엄 2000년을 기념하여 발행된 2,000엔 권의 뒷면에는 무라사키 시키부의 초상과 겐지모노가타리 에마키(繪巻; 그림에 글을 곁들인 두루마리) 제38첩(帖) 「스즈무시(鈴虫)」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원래의 복잡한 그림을 생략하고 겐지의 친아들인 레제인(冷泉院)과 겐지가 마주보고 있는 부분만이 채택되었다. 오른쪽 아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겐지이다.



그리고 1998년 11월에 개관한 겐지모노가타리뮤지엄(源氏物語ミュージアム)에는 『겐지모노가타리』와 관련된 자료와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한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겐지모노가타리』중 마지막 10권의 배경이 우지(宇治)이기 때문에 교토의 우지시에 설치된 것이다.

겐지모노가타리뮤지엄이 있는 우지(宇治)시는 세계문화유산이나 우지차라는

22) 「第一に、21世紀の日本社会の在り方を考えるとき、女性の活力が存分に生かされ、真の意味で男女共同参画社会が実現されることが重要です。そこで、新五千円札の表には戦後初の女性の肖像として樋口一葉を採用しました。樋口一葉は、女手一つで一家の生活を支え、貧困の中にあっても温かな家族の和を懸命に保ちながら、明治を代表する女流文人として数々の名作を遺しました。残念ながら夭逝しましたが、短いながらも輝いた一生を送った樋口一葉は、女性の社会進出の先駆者として、21世紀の日本社会の方向性を示すに相応しい人物と考えております。」小泉内閣メールマガジン 第63号 2002.09.26.(<https://www.kantei.go.jp/jp/m-magazine/backnumber/2002/0926.html>. 검색일: 2020.08.11.)

23) 윤혜영(2019)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본문학』 궁미디어, p.31.

브랜드로 인해 연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지만, 요즘 트렌드인 “개인 창조적인 관광 조류에 대응”²⁴⁾해야 된다는 필요성 하에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겐지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이곳이 전체 54권 중 마지막 10권의 배경이 된 것에 착안하여 뮤지엄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시회나 특별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 “차 이외의 관광자원(겐지모노가타리 우지10첩(帖)의 보급), 세계문화유산과의 연계(평등원(平等院), 우지가미신사(宇治上神社)), 겐지낭만(ろまん) 개최(표창식, 세미나, 스탬프팔리), 관광자원봉사자의 충실(자원봉사자의 증가, 영어 안내), 관광객의 증가(도로 등의 정비에 의한 관광객의 증가)”²⁵⁾를 들고 있다. 현대인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도시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속 문화내용 중 문학 및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데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다. 천재, 능률, 미래엔에서 발간한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작품도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흥행 영화 순위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일본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극장이나 텔레비전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²⁶⁾

일본은 현재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애니메이션 강대국입니다.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의 인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 것을 ‘코스프레(コスプレ)’라고 합니다.²⁷⁾

24) 片山明久(2017) 平成宇治市における「ものがたり観光」の定着と振興 (<https://www.kbu.ac.jp/kbu/tomoiki-center/research/asset/region/coc/2017/05.pdf#search='%E5%B9%B3%E6%88%90%E5%AE%87%E6%B2%BB%E5%B8%82%E3%81%AB%E3%81%8A%E3%81%91%E3%82%8B%E3%80%8C%E3%82%82%E3%81%AE%E3%81%8C%E3%81%9F%E3%82%8A%E8%A6%B3%E5%85%89%E3%80%8D%E3%81%AE%E5%AE%9A%E7%9D%80%E3%81%A8%E6%8C%AF%E8%88%88'>). 검색일: 2020.09.14.)

25) 木下賢二(2005) 「源氏物語のまちづくり」 関西元気な地域づくり発表会 【観光・歴史・文化】 ⑥、p.76.

26) 배홍철 외 5명(2018) 『일본어1』 천재교과서, p.123.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 ① 만화가 원작인 애니메이션 ②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상품을 전시 중인 서점 ③,④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표 캐릭터인 토도로와 포켓몬스터²⁸⁾

천재의 경우 애니메이션 설명에 1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위의 설명 외에 〈이웃집 토도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포스터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고, ‘それいけ! アンパンマン’, ‘クレヨンしんちゃん’, ‘ちびまる子ちゃん’, ‘あたしんち’라는 원어와 관련 이미지를 제시한 뒤 한국어 제목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탐구하기 부분에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에 대해 토론해봅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과의 연계를 피한 점은 좋지만 한국어 제목을 묻는 것이 어떠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애매하고 탐구하기의 과제 또한 대중문화 개방 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방대해지고 해당문화 소개 내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능률과 미래엔은 천재와는 달리 매우 간략하게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 능률의 경우 〈명탐정 코난〉과 코스프레 사진 2장이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미래엔은 단원 도입 전 ‘일본 맛보기’ 부분에 짧게 애니메이션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①-④의 연번은 삽입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다. 즉 세 권의 교과서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도 비슷하며 표면적인 이해로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이 분다〉는 일본 근대작가인 호리 다쓰오(堀辰雄 1904-1953)의 『바람이 분다(風立ちぬ)』, 다카하타 이사오의 〈가구야공주 이야기〉는 헤이안(平安)시대 초기에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케토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재해와 재난의 시대를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삶(生)’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1973~)의 〈언어의 정원(言の葉の庭)〉(2013) 또한 문화콘텐츠와 문학을 접목하여 생각할 때 매우 좋은 일례가 된다. 작품 속에는 『만요슈(万葉集)』에 실려 있는 가키노모토노히토마로(柿本人麻呂)의 노래²⁹⁾가 삽입되어 있어 일본의

27) 박행자 외 7명(2018) 『일본어1』 능률교육, p.66.

28) 오현정 외 5명(2018) 『일본어1』 미래엔, p.10.

29) 「鳴神の 少し響みて さし曇り 雨も降らぬか 君を留めむ
鳴る神の 少し響みて 降らずとも 吾は留まん 妹し留めば」

애니메이션이 갖는 특이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포스터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판 포스터의 경우 ““愛(あい)”よりも昔、“孤恋(こい)”のものがたり。”, 한국판의 경우 “사랑, 그 이전의 사랑 이야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 및 한자의 의미를 포함한 조사, 명사 등의 언어교육적인 활용은 물론 언어가 담고 있는 일본인들의 사상과 작품해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자국의 문학을 반영한 이러한 콘텐츠야말로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근대문학자들이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에 등장한다. 2013년 만화로 제작된 『문호 스트레이독스(文豪ストレイドッグス)』는 이후 애니메이션과 피규어 등으로 재생산되었는데, 여기에는 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 1909-1942),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9-1948), 구니키다 돛포(国木田独歩 1871-1909) 등 일본의 문호들이 작가의 생애나 작품과 관련된 초능력을 지닌 꽃미남으로 등장한다. 점점 잊혀져가는 일본근대 작가들을 각인시키고 작가 및 작품의 특성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명을 연상시키는 만화인 『문호실격(文豪失格)』(2015)이나 웹게임 <문호와 알케미스트(文豪とアルケミスト)> (2016)에도 실존했던 많은 문학자들이 등장한다.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통해 일본문학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며, 잘 만들어진 하나의 원형 콘텐츠인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OSMU)의 전형적인 일례라고도 할 수 있다.

4.2. 독자적으로 문학을 소개하는 방법

문학을 독자적인 문화칼럼으로 구성할 때 교육의 기대효과가 큰 작가로 하루키를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소신 있는 발언으로 문학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삶에 대한 그의 메시지 또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옴진리교 사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 삶의 기반을 붕괴시킬만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 하루키는 작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글을 통해 인간의 삶에 ‘선한 힘’을 끼치고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인물을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하루키의 「거울(鏡)」³⁰⁾(1983.2 「Trefle(トレフル)」)은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교

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 매우 짧은 단편이지만 그의 문학세계의 기본골격이 되는 요소들을 엿볼 수 있고, 거울의 역할이나 소리의 의미,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의 의미, ‘나’가 왜 집에 거울을 걸지 않는 것인지, ‘나’가 처한 시대상황 등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에 발행된 『기사단장 죽이기(騎士団長殺し)』(新潮社) 속 난징대학살 사건에 대한 기술이 논란이 되자 하루키는 “역사란 국가의 집단적 기억이고, 전후에 태어났다고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형태로 계속해서 추궁해갈 것이다”³¹⁾라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하루키의 스피치도 시사성이 높는데, 2009년 예루살렘상 스피치에서 한 “높고 단단한 벽과 거기에 부딪쳐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알의 편에 서겠다(高く、堅い壁と、それに当たって砕ける卵があれば、私は常に卵の側に立つ)”는 말은 쉬운 단어와 문법이 적용되어 있어 언어수업과 함께 하루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대추리소설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1958~)도 문학소개에 활용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살인사건을 풀어나가는 추리소설의 경지를 뛰어넘어 일본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설 속에 그려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기록되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蹟)』(2011.4~12 『小説 野性時代』)에도 ‘무연고사회(無縁社会)’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롯하여 버블붕괴, 지진 및 청년실업문제 등에 대한 기술이 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쫓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다른 이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신의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도 열심히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작품 곳곳에 엿보인다. 즉 “1920년부터 2012년이라는 시간적 배경 속에서 각각의 시대적 특징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30) “주인공인 ‘나(僕)’는 삼십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며, 그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돌아가면서 괴담을 이야기하는 ‘백물어(百物語)’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 1960년대 후반 일련의 사회분쟁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포기한 ‘나’가 전국을 떠돌며 방랑생활을 하던 중, 어느 작은 도시의 중학교에서 겪은 불가사의한 체험담이 삽입되어 있다. 즉,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윤혜영(2016)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거울(鏡)」론 - 소리의 양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35,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p.182.)

31) 村上春樹(2017.04.02.) 「歴史とは国にとっての集团的記憶であり、戦後生まれだから僕に責任がないとは思わない。物語の形で問い続ける」読売新聞朝刊のインタビュー

이루어진 삶의 가치에 대해 피력하고 있”³²⁾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人の心の声は、決して無視しちゃいかん)”, “신세를 진 시설이니 이 기회에 ‘온가에시’를 하고 싶어서(お世話になった施設ですから、この機会に恩返しをしたいと思って)”³³⁾ 등은 언어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높고 일본인 또는 일본특유의 ‘온가에시’ 등에 대한 학습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기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I』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화내용의 특징 및 문학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문학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해보았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래엔, 천재, 다락원, 능률에서 발간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지만 일본문화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문학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문학이 역사와 사회, 그리고 인간을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일본문학은 재해 및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사회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일본이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문학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교과서에 문학을 도입하는 사례로서 기존 교과서의 문화내용에 접목시켜 일본문화콘텐츠와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교과서에는 흥미롭고 다양한 문화가 소개되고 있지만 물질문화뿐만 아

32) 윤혜영(201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蹟)』에 나타난 ‘온가에시(恩返し)’」 『日本文化學報』 81, 한국일본문화학회, p.224.

33) 東野圭吾(2012) 『ナミヤ雑貨店の奇蹟』 角川書店、p.133、253.

나라 언어문화를 비롯하여 정신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본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본어 및 문화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시대 속에서 삶의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BTS의 활약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6])』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p.167, 293, 294, 305, pp.353-354, 396-397.
- _____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I)(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4])』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p.6.
- 김옥동(1996)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p.40.
- 박행자 외 7명(2018) 『일본어1』 능률교육, p.8, 66.
- 배홍철 외 5명(2018) 『일본어1』 천재교과서, p.123.
- 오세원(2005) 「한국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반영된 일본 문화 요소의 현황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12종 [일본어 I]교과서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24, 한국일본어문학회, pp.112-113.
- 오현정 외 5명(2018) 『일본어1』 미래엔, p.10.
- 윤혜영(2016)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거울(鏡)」론 -소리의 양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35,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p.182. (DOI: <http://dx.doi.org/10.15755/jfs.2016..35.181>)
- _____ (201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雜貨店の奇蹟)』에 나타난 ‘온가에시(恩返し)’」 『日本文化學報』 81, 한국일본문화학회, p.224.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81.201905.211>)
- _____ (2019)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본문학』 궁미디어, p.31.
- 이경수(2019) 「日本語教科書の意思疎通機能と日本文化に関する研究」 『日本語文學』 82, 한국일본어문학회, p.160. (DOI: <http://dx.doi.org/10.18704/kjll.2019.09.82.141>)
- 친호재(2014) 『일본문화의 이해와 일본어교육』 역락, p.5.
- 호소카와 히데오(2012) 「언어와 문화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언어와 문화를 잇는 일본어교육』 시사일본어사, p.3.
6. 가치 있는 문학의 세계(<https://yensonng.tistory.com/104>. 검색일: 2020.08.20.)
- 다음 국어사전(<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76425&supid=kku000221525>. 검색일: 2020.09.07.)
- EBS 다큐프라임 국가경쟁력 리포트 <제3부 문화강국이 되는 길> 방송일: 2010.09.29.
- 木下賢二(2005) 「源氏物語のまちづくり」 関西元氣な地域づくり発表会 【観光・歴史・文化】 ⑥、p.76.

鈴木斌(2005)『生きる力を与える文学-深い感動・思索の中心を読む-』冬至書房、p.11.

村上春樹(2017.04.02.) 読売新聞朝刊のインタビュー

東野圭吾(2012)『ナミヤ雑貨店の奇蹟』角川書店、p.133、253.

片山明久(2017) 平成宇治市における「ものがたり観光」の定着と振興(<https://www.kbu.ac.jp/wkbu/tomoiki-center/research/asset/region/coc/2017/05.pdf#search='%E5%B9%B3%E6%88%90%E5%AE%87%E6%B2%BB%E5%B8%82%E3%81%AB%E3%81%8A%E3%81%91%E3%82%8B%E3%80%8C%E3%82%82%E3%81%AE%E3%81%8C%E3%81%9F%E3%82%8A%E8%A6%B3%E5%85%89%E3%80%8D%E3%81%AE%E5%AE%9A%E7%9D%80%E3%81%A8%E6%8C%AF%E8%88%88>, 검색일: 2020.09.14.)

桐ヶ谷(2011.05.26.) 優息の詰まる職場・職場の閉塞感はどこからやって来るのか?(第1回) 社会や企業を取り巻く“閉塞感”(https://toyokeizai.net/articles/-/7066, 검색일: 2020.09.18.)

小泉内閣メールマガジン第63号 2002.09.26.(https://www.kantei.go.jp/jp/m-magazine/backnumber/2002/0926.html, 검색일: 2020.08.11.)

논문 투고 일자 : 2020. 09. 28.
논문 심사 일자 : 2020.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20. 10. 28.

< 要 旨 >

日本語教育活性化における文学の必要性和教育方法
-2015改定教育課程の高等学校『日本語 I』を中心に-

尹惠映

本研究では、日本語教育の活性化と教育目標を実現するために、2015改定教育課程の高等学校『日本語 I』を中心に、文化内容の特徴と文学の必要性を検証した後、文学教育の方法について提案してみた。

現在高いシェアを占めている四冊の『日本語 I』の教科書を分析した結果、第2外国語科教育課程の指示に従って多様な文化内容が紹介されているが、言語をもって社会と人間を描いている文学は扱われていなかった。文学には、災害や災難の時代を乗り越えようとする日本社会や日本人の姿を描きながら、人々へ生の強いメッセージを伝える一つのツールとしての役目を果たしている側面がある。また、日本が文化強国として成長した背景には文学の力を軽視できない部分もある。

よって、「世界市民意識」を備え、「新しい文化創出に寄与」できる資質と態度を育てるという教育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は教科書の文化コラムの中に文学を導入する必要があると言えよう。それで教科書に文学を導入する事例として、既存の教科書の文化内容に日本文学を組み合わせる日本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コンテンツと文学を結び付ける方法、文学を独自に提示する方法を具体的に提案した。

Necessity of literature and educational method for revitalizing Japanese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Japanese I” in the revised high school curriculum of 2015-

Yun, Hye-Young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literary education to revitaliz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nd realize educational goal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ontent and the necessity of a method of literature, focusing on the high school “Japanese Language I”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ur “Japanese I” textbooks that currently occupy a high proportion, various cultural contents are introduc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e second foreign language curriculum, but literature depicting society and humanity is not dealt with. Literature has an aspect that serves as a tool to convey a strong message of life to people while depicting Japanese society and Japanese people trying to overcome the times of disasters. In addition, the power of literature cannot be underestimated in the background of Japan’s growth as a cultural powerhous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iterature into the cultural column of textbooks in order to achieve the educational goal of cultivating the qualities and attitud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new culture” and build “global citizenship”. Therefore, in this study, as examples of introducing literature into textbooks, three specific methods were proposed, namely connecting Japanese entertainment content with literature by combining Japanese literature with the cultural content in existing textbooks, combining Japanese entertainment contents and literature, and independently presenting literature.